'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됨',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표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으실 때 '순종'이란 안경을 사용한다고들 말씀들을 합니다. '순종'의 안경을 통해서 '제자됨'을,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임을 평가하는 것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방법이라고 성경이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하나님께 거룩하고 좋은 믿음의 나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순종의 믿음의 삶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런 순종의 믿음의 삶에는 좋은 열매들이 맺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의 산상설교에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마태복음 7: 16-18)

\* 내가 '순종'의 안경을 통해서 나를 볼 때 어떤 제자이십니까?

\* '순종'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신학적인 부분으로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알고 있는 것과

지금 생각나는 것을 편안하게 말해 봅시다.)

1. 순종이란?

너무도 당연한 말같지만 순종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앤드류 머레이'란 사람은 순종을 이렇게 말합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은 그것을 인정하므로 끝나는 것도 아니고 그것을 행하려고 마음먹는 데에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순종이란 오직 하나님의 뜻을 즉시 행하는 것입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에 한가지 덧붙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순종이란 오직 하나님의 뜻에 즉시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종함에 끝까지 기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순종하고 불평한다거나, 순종하고 힘들어 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받으시는 진정한 순종이 될 수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순종이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뻐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2. 그러면 우리는 도대체 어디까지 순종해야 하는 것인가?

결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순종에는 커트라인이 없습니다.

빌립보서 2:8에는 예수님의 순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모든 삶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범이 되고 우리 또한 예수님을 닮아야 한다는 것은 이미 잘 알고 있습입니다. 순종의 영역에 있어서도 마찬가지 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예수님과 같이 생명을 드리기까지, 죽기까지 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아가페의 화요리더쉽모임 가운데 계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순종에는 커트라인이 없습니다.

3.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순종해야 하는가?

마음으로부터 출발한 순종이 되어야 합니다. 신명기 30:2은 마음과 성품을 다하는 것이 순종함에 있어 핵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와 네 자손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한 것을 온전히 따라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우리는 마음과 성품을 다한 순종을 해야 합니다. 겉 보기에만 좋고 내가 하고 싶은 순종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출발된 '온전한 순종'을 해야 합니다.

4. 순종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

순종은 성령께서 맺으시는 열매를 가져옵니다.

만사가 형통하고 마음이 평온할 때는 누구나 '순종'에 대한 자신감을 갖을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고난 속에 있을 때는 여러가지의 인간적인 모양으로 순종을 거부하는 모습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순종은 이런 고난 속에서 성령과 끝까지 함께 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과 말씀하심에 순종할 때, 그 믿음의 사람의 삶가운데 성령께서 맺게 하시는 열매를 반드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자가 진정한 제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자가 축복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생명을 드리기까지 순종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